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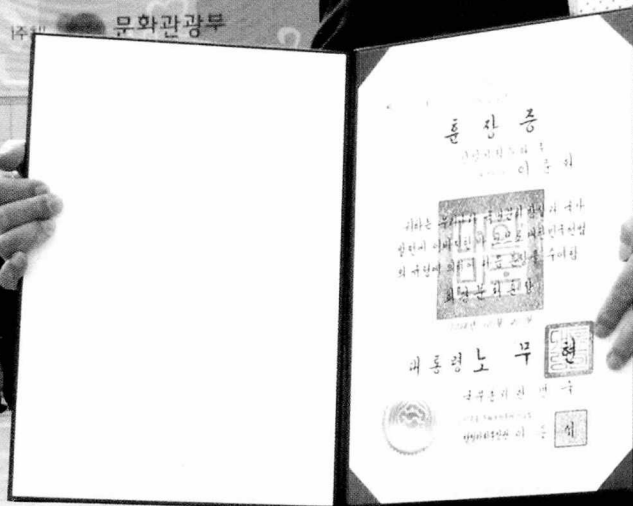
2006
문화의 날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시상식

2006. 10. 20(금) 오후 3시

장소 국립국악원

주최 문화관광부



이춘화
신일기획문화(주)
대표이사

문화훈장 수훈



이춘화 신일기획문화(주)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20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2006년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추천으로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1963년 인쇄업계에 입문한 후 78년 신일인쇄공사를 창업, 외길 인쇄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춘화 사장은 첨단인쇄기술 개발과 업계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파주인쇄공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1990년부터 8년간 재임하면서 인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쇄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일원에 약230,000㎡의 부지를 매입, 인쇄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인쇄산업단지가 일산출판단지외 벨트를 이루어 문화산업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또 우리나라 인쇄, 출판문화 향상을 위해 1988년 도서출판 푸른꿈을 설립한 후 꾸준한 양서를 발간하여 국민정서와 문화향상에 이바지했으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인쇄기술 개발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체제를 개선하고 사내 자체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능인력을 배

출하는 등 인력양성에도 앞장섰다.

1988년과 1989년에는 서울시 고교 입시 문체 시험지 인쇄 시 전 직원이 사내에 거주하면서 외부 유출없이 인쇄물을 완벽하게 납품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와 서울시장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인쇄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과 인쇄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인쇄정보조합의 임원으로 다년간 활동하면서 인쇄인들의 단결과 공동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섰으며 건국대학교 총동문회 이사회 의장과 대한상의 영등포상공회 수석부회장, 국제 라이온스클럽(광화문클럽) 이사, 중화면 장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한 바 있다.

이춘화 사장은 1943년 생으로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상학과를 졸업했다.

한편 20일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등 많은 인쇄인들이 참석, 이춘화 사장의 훈장 수훈을 축하했다. ☺